

# 물의 별자리 龍星, 그 신화와 우주의 춤

김 현 자\*

- I. 들어가는 말
- II. 낮을 열고 밤을 여는 축룡(燭龍), 비를 불러오는 應龍
- III. 고대의 춘분제, 穀雨의례
- IV. 나가는 말

## I. 들어가는 말

이 글에서는 용에 관한 고대 중국의 몇몇 신화들을 고찰하겠다. 중근동과 유럽 문명권들에서 용이 대체로 땅이나 물의 파괴적 힘을 드러내는 부정적 존재로 표상되는 것과는 달리, 중국에서 용은 양가적 존재로 나타난다: 밤낮의 주재자인 축룡(燭龍), 물의 통어자인 응룡(應龍), 물난리를 일으키는 질서의 교란자 교룡(蛟龍). 이처럼 다양한 용의 모습들은 여러 신화를 통해 표현된다. 고고학적 발굴물과 고대 문헌들이 제공하는 정보들에 도움을 받아, 이 신화의 내용들은 고대 중국의 왕권 의례 및 민간 의례들에서 그 소재를 차용했거나, 그 의례의 일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이 용들에 관한 신화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나를 알고자 하거나, 그 신화들의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면, 신화들의 소재가 되는 의례들도 함께 고려하여 검토해야만 한다. 예컨대 축룡의 신화는 태양의례와, 응룡과 교룡의 신화는 기우의례와 연관지어 고찰되어야 이 신화들의 존재 이유가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작업들은 상당히 많은 분량을 요하므로 한 편의 소논문에서 이에 관한 탐구를 다 진척시키기는 어렵다. 축룡의 신화와 태양의례에 관한 연구는 다른 기회에 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물의 통어자로서의 응룡(應龍)에 관한 신화와 관련 의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그런데 밤낮의 주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 축룡의 신화들에서 이미 물의

---

\* 서울대 강사, 종교학

통어자로서의 용의 모습이 희미하게 드러난다. 축룡의 눈 움직임은 태양의 하루 운행, 즉 밤과 낮의 교체를, 그의 호흡은 계절의 변화를 가져다주므로, 축룡의 신화들에서 밤/낮, 해/달, 불/물의 기능 분화가 드러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빛과 어둠, 추위와 더위의 주재자인 축룡과 물의 통어자인 응룡은 기능적으로 맥을 같이 하므로, II장에서 먼저 축룡과 응룡의 신화들을 살펴보겠다.

응룡(應龍)이라는 이름 자체, 그리고 물의 통어자라는 응룡의 기능은 밤하늘의 별자리 용성의 움직임과 관련된 것임을 뒷바침하는 자료들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현대 천문학에서 용자리는 북극 주위를 회전하는 항성(恒星)으로, 북반구 지역에서는 일년 내내 밤하늘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周極星 별자리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다. 고대 중국인들이 언급하는 龍星과 현대 천문학에서 말하는 용자리가 동일한 별자리인지 아닌지를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가 없지만, 어쨌든 고대 중국인들에게 용성은 주극성(周極星)이 아닌 출몰성(出沒星)으로 인식되었던 것 같다. 중국 고대 전통에서 용성(龍星)의 나타남과 사라짐은 춘분과 추분의 때를 알려주었던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고대 중국의 춘분제는 곡물의 성장에 필요한 비를 기원하는 곡우제(穀雨祭)였고, 추분제는 풍요로운 결실을 기원하는 곡실제(穀實祭)였다. 물의 통어자로서의 응룡의 기능은 춘분제인 곡우제와 관련되므로, III장에서의 논의는 주로 용성(龍星)과 춘분제의 상관성에 관한 것이 될 것이다. 춘분제인 곡우의례에서는 특히 춤이 주요한 구성 요소를 이루었다. 따라서 용의 별자리 및 신화와 관련된 의례는 곡우제에서의 춤에 관한 내용이 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우리로 하여금 응용신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알게 해줄 뿐 아니라, 그 신화의 내용들이 기우제와 관련되어 있으리라 추정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응용신화의 몇몇 신화소들을 분석하여 이 신화가 전하는 이야기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보겠다.

## II. 낮을 열고 밤을 여는 축룡(燭龍), 비를 불러오는 應龍

### 1. 밝음과 어둠, 더위와 추위를 주관하는 축룡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시 근교에 위치한 삼성퇴(三星堆)박물관에는 청동으로 정교하게 조된 거대한 태양의 나무가 전시되어 있다. 고대 문헌을 통해 전

해진 회화신화 덕분에 중국학자들은 그 아름다운 청동주물이 태양의 나무임을 쉽게 알 수 있었으며, 그래서 거기에 신수(神樹)라는 표제를 붙였다. 꼭대기의 조각이 떨어져 나가버린 이 나무의 줄기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부분은 세계의 결가지를 가지고 있다. 아홉 가지에는 모두 새가 한 마리씩 등지를 틀고 있고, 하단부에는 용이 자리를 잡고 앉아 그 몸체를 길게 위로 뻗어 올리고 있다. 마치 빨 달린 새처럼 보이는 이 동물의 형상을 용으로 판별할 수 있게 된 것도 역시 고대 문헌이 전해주는 신화들 덕분이다.

1. “西北海之外, 赤水之北, 有掌尾山. 有神人面蛇身而赤, 直目正乘. 其瞑乃晦, 其視乃明. 不飲不寢不息, 風雨是調. 是燭九陰, 是謂燭龍

서북해의 밖, 적수의 북쪽에 장미산이 있다. 사람의 얼굴에 뱀의 몸을 가진 붉은색의 신이 있는데, 눈을 곧게 뜨고 반듯이 올라타 있다. (그가) 눈을 감으면 어두워지고, 눈을 뜨면 밝아진다. 먹지도, (잠을) 자지도, 쉬지도 않으며, 비와 바람을 불러올 수 있다. 이것은 대지의 아홉 밑바닥을 비추며, 이름을 촉룡이라고 한다.”<sup>1)</sup>

고대 중국인들의 신화적 사고는 해와 달이 교대로 떠올랐다 지면서 밤낮이 교체되는 자연현상을 어떤 우주적 동물이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모습으로 상상했으며, 이 우주적 동물을 용으로 형상화하였다. 하늘과 땅이 아홉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은, 촉룡이 대지의 어두운 아홉 밑바닥(九陰)에 빛을 던지므로, 그를 촉음(燭陰)이라고도 불렀다.

2. “鍾山之神, 名曰燭陰, 視爲晝, 瞑爲夜. 吸爲冬, 呼爲夏. 不飲不食不息, 息爲風. 身長千里, 在無臂之東. 其爲物, 人面, 蛇身, 赤色, 居鍾山下.

종산의 신의 이름은 촉음이라고 한다. (촉음이) 눈을 뜨면 낮이 되고 눈을 감으면 밤이 된다. 숨을 내쉬면 겨울이 되고, 숨을 들이마시면 여름이 된다. (물을) 마시지도, (음식을) 먹지도 않으며, 쉬지도 않는데, (숨을) 쉬면 바람이 된다. 몸길이는 1,000리가 되고, 무계의 동쪽에 있다. 그 생김새는 사람의 얼굴에 뱀의 몸을 하고 붉은색이며, 종산의 기슭에 산다.”<sup>2)</sup>

촉룡 또는 촉음의 눈뿔은 태양이 그 밝은 빛을 퍼뜨리는 낮이고, 그의 눈감음

1) 『山海經』, 「大荒北經」.

2) 앞의 책, 「海外北經」.

은 희미한 달이 그 빛을 드리우는 밤이다. 그런데 또 다른 신화 전승에서는 낮의 밝은 태양빛과 밤의 어두운 달빛은 같은 혈통의 두 다른 존재, 촉광(燭光)과 소명(宵明)으로 구별되어 표상된다.

3. “舜妻登比氏生宵明燭光 處河大澤 二女之靈能照此所方百里 一曰登北氏.

순의 부인 등비씨가 소명과 촉광을 낳았다. (이들은) 황하의 대택에 살았는데, 두 여인의 신령함은 이곳 사방 백리를 비출 수 있었다. 혹은 등부씨라고도 한다.”<sup>3)</sup>

어두운 달빛 소명과 밝은 태양빛 촉광이 교대로 ‘떠올라’ 둘이 ‘어울려’ 하루가 지나감을 표현한 것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위 신화에서 소명과 촉광을 낳은 순(舜)의 부인 이름은 ‘등비 登比’이다.<sup>4)</sup>

떴다 감았다 하는 촉룡의 눈 움직임이 낮과 밤을 교체시킨다면, 내쉬고 들이쉬는 그의 호흡은 더위와 추위를 번갈아 교체시키며 계절을 구분한다. 밤낮과 계절의 주재자, 즉 우주질서의 주재자로서의 용의 이미지는 중국 전통 속에서 왕인 천자와 결합되어 통치권의 상징으로 각인되어 용좌(龍座)는 곧 왕위를 의미하게 된다. 이러한 용의 이미지는 중국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현재까지 지속되어 용은 통치자의 문양(紋樣)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인들의 집단심성과 민중의 삶 속에서 용의 이미지는 그보다 널리 물과 연관되어 자리잡는다. 중국에서 황하의 신을 비롯하여 바다와 크고 작은 여러 강의 신들은 일찍부터 용으로 표상되어 왔다. 물의 주재자로서의 용의 이미지는 비와 바람을 불러올 수 있는 촉룡의 모습에서도 나타나며, 소명과 촉광의 거주지가 황하의 대택이라는 데서도 어렵듯이 드러난다.

## 2. 물을 통어하는 응룡

용이 물과 연관되어 모습을 드러낼 때는 응룡(應龍) 또는 교룡(蛟龍)이라 불렀는데, 고대 전승에서 교룡이 주로 물난리를 일으키는 작란(作亂)의 주체로 등장하는

3) 『山海經』, 『海內北經』.

4) 재미있는 사실은 사마천이 『史記』에서 서술하는 혈통에 의하면, 빛의 제왕 堯는 자신의 두 딸을 舜에게 주었다고 한다. 『史記』의 왕조 교체는 오행상극설에 따르며, 중국 전통은 요의 치세를 불의 덕으로 나라를 다스렸던 화덕(火德)의 시대로, 순의 치세는 물의 덕으로 나라를 다스렸던 수덕(水德)의 시대로 간주한다.

데 반해, 응룡은 비를 불러와 가뭄을 종식시키는 치란(治亂)의 주체로 등장한다.

4. “大荒東北隅中，有山名曰凶犁土九。應龍處南極，殺蚩尤與夸父，不得復上。故下數旱，旱而爲應龍之狀，乃得大雨。

대황의 동북쪽 모퉁이에 흉려토구라는 산이 있다. 응룡이 남쪽 끝에 사는데, 치우와 과보를 죽이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 못했다. 그래서 땅에는 자주 가뭄이 들었는데, 가뭄이 들었을 때 응룡의 모습을 만들면 큰 비가 내렸다.”<sup>5)</sup>

5. “有係昆之山者，有共工之臺，射者不敢北鄉。有人衣青衣，名曰黃帝女魃。蚩尤作兵伐黃帝，黃帝乃令應龍攻之冀州之野。應龍畜水，蚩尤請風伯雨師，縱大風雨。黃帝乃下天女曰魃，雨止，逐殺蚩尤。魃不得復上，所居不雨。叔均言之帝，後置之赤水之北。叔均乃爲田祖。魃時亡之。所欲逐之者，令曰，神北行。先除水道，決通溝瀆。

계곤산이라는 곳이 있다. (그곳에) 공공의 누대가 있는데, 활을 쏘는 사람이 감히 북쪽을 향하지 못한다. 푸른 옷을 입은 사람이 있어 이름을 황제의 딸 발이라고 한다. 치우가 무기를 만들어 황제를 치자, 황제가 이에 응룡으로 하여금 기주의 들판에서 그를 공격하게 하였다. 응룡이 물을 모아 둔 것을 치우가 풍백과 우사에게 부탁하여 폭풍우로 거침없이 쏟아지게 했다. 황제가 이에 하늘의 딸(天女) 발을 내려 보내니 비가 그쳤고, 마침내 치우를 죽였다. 발이 다시(하늘로) 올라갈 수 없게 되자 그가 머무는 곳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 숙균이 황제에게 이 사실을 아뢰자, 후에 그녀를 적수의 북쪽에 두어 살게 하였고, 이에 숙균은 농경의 책임자가 되었다. 발이 때때로 그곳을 빠져나오면 그를 쫓아 내려는 사람들은 “신이여! (적수의) 북쪽으로 돌아가소서”라고 명령하듯이 말했다. 그리고 우선 밭도랑의 물길을 터놓고 개천을 터서 통하게 해놓았다.”<sup>6)</sup>

신화 4와 5는, 비록 둘 다 황제와 치우의 투쟁 이야기의 일부를 차용하여 엮어졌으리라 추정되긴 하나, 동일한 역사적 실재를 전달하지는 않는다. 이 신화들이 말하고자 하는 심층의 내용은 무엇일까? 축룡이 이미 비와 바람을 불러오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데, 왜 물을 다스리는 용은 굳이 응룡이라 불렀을까? 밤하늘의 별자리 용성과 춘분제에 관한 고대 기록들에서 우리는 이 물음들에 대한 답을 찾아낼 수 있다.

5) 『山海經』, 「大荒東經」.

6) 앞의 책, 「大荒北經」.

### Ⅲ. 고대의 춘분제, 穀雨의례

#### 1. 물의 별자리 용성

24절기의 하나인 穀雨는 벼농사의 파종기이다. 곡우 때면 가뭄을 해결하는 단비가 내려 땅을 부드럽게 하고 눈에는 물이 고이므로, 예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과 중국인들은 이때 한 해의 식량을 마련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해마다 4월 20일 경이면 어김없이 내리는 이 비는 곡식을 맺을 식물이 자라게 하는 단비이므로 곡우(穀雨)라 불렀다. 곡우 때 파종을 하기 위해서는 일찌감치 준비를 해야만 한다. 비가 내린 후에 준비를 시작하면 파종 시기를 놓치기 십상이므로 미리 그 때를 알아야만 했다. 고대 중국인들에게 이 시기가 다가옴을 알려주었던 것은 바로 하늘의 별자리들 중 용성(龍星)이었다.

후한(後漢) 왕충(王充, A.D. 24-97?)의 증언에 의하면, 용성(龍星)의 나타남과 사라짐은 곡우제(穀雨祭)와 곡실제(穀實祭)의 시기를 알려주는 농사력의 지표였다.

“龍星二月見, 則(春)雩祈穀雨. 龍星八月入, 則秋雩祈穀實.

용성이 이월에 나타나면, 우제를 지내 곡식을 잘 자라게 할 비를 내리도록 기원한다.

용성이 팔월에 들어가면, 가을 우제를 지내 알찬 곡식의 수확을 기원한다.”<sup>7)</sup>

“啓蟄, 龍見, 皆二月也. 春二月雩, 秋八月亦雩, 春祈穀雨, 秋祈穀實. 當今靈星秋之雩也. 春雩廢, 秋雩在也.

칩거했던 벌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때와 용성이 나타나는 때는 모두 이월이다.<sup>8)</sup>

봄 2월에 우제를 지내고, 가을 8월에도 역시 우제를 지낸다.

봄 제사는 곡식을 잘 자라게 할 비를 내리도록 기원하는 것이고,

가을 제사는 곡식의 알찬 결실을 기원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영성제는 가을 雩祭이다.

봄 雩祭는 폐지되었으나 가을 雩祭는 현존하고 있다.”<sup>9)</sup>

7) 『論衡』, 「祭意篇」.

8) 왕충은 ‘啓蟄, 龍見’이라는 문구를 『左傳』에서 인용한 것이라 말하는데, 실제로 『左傳』에서는 ‘칩충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때는 교제를 지내고, 용성이 나타나는 때에는 우제를 지낸다 啓蟄而郊, 龍見而雩’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고대 월령에 의하면, 겨울 동안 땅 속에 칩북해 있던 벌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때인 계칩은 2월인 중춘의 달이 아니라 입춘의 달에 속해 있다.

왕충은 『左傳』의 두 구절을 인용하면서 영성제를 후한 이전의 어느 시대에 매년 봄과 가을에 두 번 거행되었던 농경축제 우제(雩祭) 중 가을 축제로 설명한다. 여기서 2월과 8월은 모두 음력 월로, 오늘날의 3월과 9월경에 해당한다. 따라서 왕충의 기록을 통해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추석, 중국에서 중추절(仲秋節)이라 불리는 명절은 고대의 춘분제인 우제(雩祭), 후한 시기에는 영성(靈星)이라 불렀던 풍요기원의례였으며, 봄 雩祭는 농경에 필요한 단비를 기원했던 춘분제였다.

고대 전승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춘분제와 추분제는 우(雩)라 불렸다. 우(雩)는 대우(大雩), 또는 무우(舞雩)로 기록되어 있기도 한데, 이들은 때로는 춘분제, 또는 추분제와 같은 주기적 의례로 서술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홍수나 가뭄 시에 거행되었던 비주기적 의례로 서술되기도 한다. 대우(大雩)는 또 「월령」에서 하지축제로 규정되기도 한다.<sup>10)</sup> 이들의 차이와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 아니므로, 여기서는 祈雨의례로서의 雩祭에 관한 기록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春秋』에는 大雩가 21번 기록되어 있다. 이 중 한 번만 겨울에, 나머지는 모두 秋八月과 九月의 일로 기록되어 있다. 환공(桓公) 5년의 大雩에 대해 『左傳』의 저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덧붙이면서 가을의 大雩祭는 시기에 맞지 않음을 지적한다.<sup>11)</sup>

“秋大雩, 書不時也. 凡祀, 啓蟄而郊, 龍見而雩, 始殺而嘗, 閉蟄而烝. 過則書.

가을에 대우제를 지냈다는 것은 제 때에 지내지 않았음을 적은 것이다.

무릇 제사는 땅 속에 칩거해 겨울을 지낸 벌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때에 교제를 지내고, 용성이 나타나는 때에 우제를 지내고, 살기가 퍼지기 시작하는 때에 상제를 지내고, 벌레들이 땅 속으로 숨어 들어가면 증제를 지낸다. 시기를 지나쳐 제사를 지내게 되면 기록했다.”<sup>12)</sup>

가을의 大雩祭는 시기에 맞지 않다는 『左傳』의 설명이 정확한지를 현재로서는

9) 『論衡』, 「明雨」.

10) 『禮記』, 「月令」, 仲夏之月; 『呂氏春秋』, 「十二紀」.

11) 주지하듯이 『左傳』, 『公羊傳』, 『穀梁傳』은 춘추시대魯나라의 역사서 『春秋』에 대한 일종의 주석서이다.

12) 왕충은 『左傳』을 인용하면서, 「啓蟄, 龍見 而雩」라고 적었으나,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진 『左傳』에서는 「啓蟄而郊, 龍見而雩」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고대 월령에 의하면, 겨울 동안 땅 속에 칩거해 있던 벌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때는 2월인 중춘의 달이 아니라 입춘의 달에 속해 있다.

판단하기 어렵다. 대우가 춘분제인지, 아니면 고대 月令의 증언대로 하지제인지, 춘분제와 하지제를 모두 대우라는 동일 이름으로 불렀는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춘분제와 하지제 중의 하나가 폐지되었거나 하나로 통합되었는지 등 여러 가지 물음이 제기될 수 있다. 이를 규명하는 것이 이 글에서의 관심사는 아니므로, 여기서는 고대에 춘분의 때에 있었던 축제 — 그것이 雩라 불렸건,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불렸건 — 와 龍星과의 상관성, 그리고 그 축제의 성격과 내용에 주목해 보자.

왕충의 증언 외에, 『說文』의 다음 구절에서도 춘분, 추분과 용성의 출몰과의 상관성을 엿볼 수 있다.

“鱗蟲三百六十，而龍爲之長。能幽能明，能細能巨，能短能長。春分而登天，秋分而入淵。

비늘 있는 동물은 360가지인데, 그 중 용이 으뜸이다. 어두워질 수도 있고 밝아질 수도 있으며, 작게 움츠릴 수도 있고 크게 펼칠 수도 있으며, 짧아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다. 춘분에는 하늘로 올라가고, 추분에는 못으로 들어간다.”<sup>13)</sup>

왕충은 ‘啓蟄，龍見’이라는 구절을 『左傳』에서 인용한 것이라 말하는데, 앞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우리에게 전해지는 『左傳』에서는 “啓蟄而郊，龍見而雩 칩충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때에는 교제를 지내고, 용성이 나타나면 우제를 지낸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고대 월령에 의하면, 땅 속에서 동면하고 있던 벌레들이 잠에서 깨어나 움직이기 시작하는 때인 계칩은 2월인 중춘의 달이 아니라, 입춘의 달에 속한다. 이 점에서 왕충의 古書 인용에 약간의 착오가 있어 보이긴 하나, 그가 제공하는 고대 雩祭의 정보는 신빙성 있는 것으로 수용할만한 근거들이 있다.

왕충은 穀雨祭로서의 春雩가 고대에 존재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공자와 제자들 간의 대화의 일부를 인용하는데, 이 대화는 현재 『論語』에 실려 있다.

어느 날 공자가 제자들에게, “혹사 너를 알아서 써주는 이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如或知爾，則何以哉”고 물었다. 자로(子路), 염유(冉有), 자화(子華)가 각기 대답한 뒤 자석(子皙)이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저문 봄에 봄옷이 이미 이루어지

13) 『說文』, Gustave Schlegel, *Uranography chinoise*, Leyde, E. J. Brill, 1875, p.54에서 재인용.



면 冠者 오륙 인과 童子 육칠 인으로 기(沂)에서 목욕하고, 무우(舞雩)에서 바람 쐬고 읊고 돌아오겠습니다. 莫春者, 春服既成, 冠者五六人, 童子六七人, 浴乎沂, 風乎舞雩, 詠而歸” 그러자 공자가 감탄하며, “나는 점(點, 曾皙)의 뜻에 찬성한다 吾與點也.”고 말하였다.<sup>14)</sup>

무우(舞雩)를 지명으로 이해하고, 또 고대 지식인들을 유가와 도가로 엄격히 구분하려는 경향이 있는 현대 학자들은 『論語』의 이 구절에서 드러나는 공자의 도가적 면모에 당혹감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만일 이 대화에 대한 왕충의 설명이 옳다면, 오늘날의 경건한 유가들이 도가적 풍류를 즐기는 듯 해 보이는 공자의 모습에 당황해 할 필요가 없다.

왕충은 이 구절을, 대다수의 주석가나 학자들이 설명하는 것과는 달리, 고대의 春雩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魯나라에서는 기수(沂水) 가에서 우제(雩祭)를 거행하며, 冠者和 童子는 雩祭에서 춤을 추는 樂人들을 말하는 것이다. 둘째로 ‘기에서 목욕한다 浴乎沂’는 ‘기수를 건너는 涉沂水’ 행위를 말한다. 셋째로 ‘風乎舞雩’는, 대다수의 주석가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舞雩에서 바람 쐬며 몸을 말리다’가 아니라, 風을 『詩經』의 ‘國風’과 같은 風歌, 즉 각 나라에서 부르는 민요로 해석해야 한다. 넷째로 ‘영이귀 詠而歸’는 ‘영이귀 詠而饋’로, 그래서 제사 후의 향연에서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늦은 봄에 봄옷이 이미 완성된 시기는 4월로, 周曆을 따르는 노나라의 4월은 正歲로는 2월<sup>15)</sup>에 해당된다고 말하면서, 앞의 『左傳』의 두 구절을 인용하며 이 설명을 보강한다.

마르셀 그라네(Marcel Granet)는 왕충의 이 견해를 수용하면서 雩를 춘추전국 시대 노나라에서 행해졌던 봄 축제로 설명한다. ‘國風’의 여러 시들 속에 나타나는 ‘涉水’라는 표현에 주목한 그는 이것을 고대에 비를 간구하며 악사들이 추었던 춤(舞雩)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한다. 또 그라네는 가뭄 때에 祈雨祭에서 추추었던 무당의 수가 16임을 말해주는 『周禮』의 기록도 추가로 제시함으로써,<sup>16)</sup> 冠者五六人和 童子六七人을 춤추는 樂人으로 해석한 왕충의 견해를 뒷받침한다.<sup>17)</sup> 그리고 그는 이들이 추었던 춤은 용이 물에서 나와 꿈틀거리며 하늘로 올라가는 모

14) 『論語』, 「先進」.

15) 여기서 2월은 음력 2월이다.

16) 「春官」, 司巫: 女巫.

17) Marcel Granet, *Fêtes et chansons anciennes de la Chine*, Albin Michel, Paris, 1982, pp.157-160.

습을 모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앞에서 인용한 공자와 제자들과의 대화에서 증석의 답변이 고대의 봄 축제의 하나인 雩祭와 그 축제에서의 춤과 노래 및 향연에 관한 것이고, 또 雩祭의 때를 알려주는 것이 용성이었다면, 그라네의 주장대로 이 춤사위는 분명 용의 움직임을 모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비록 단편적이긴 하나 실제로 그라네의 이 주장을 타당한 것으로 수용할 근거들을 고대 문헌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 2. 비를 부르는 용의 춤

용자리가 밤하늘에 그 모습을 드러내는 춘분 경에는, 천둥소리가 들리고 번개가 치기 시작한다. 이때는 땅 밑에 칩복하여 꿈틀거리고 있던 벌레들이 땅 위로 기어 나오려고 한다.

“是月也, 日夜分, 雷乃發聲, 始電, 蟄蟲感動, 啓戶始出.

이 달(중춘의 달)에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 비로소 천둥소리가 들리고 번개가 치기 시작한다. 땅 밑에 칩복해 있던 벌레들이 이 움직임에 감응하여 땅 위로 구멍을 뚫고 나오기 시작한다.”<sup>18)</sup>

고대 중국인들은 용도, 물 속에 거주하고 있다가,<sup>19)</sup> 천둥소리를 들으면 몸을 일으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고 생각했다.

“龍聞雷聲, 則起, 起而雲止, 雲止而龍乘之.

용이 천둥소리를 들으면 몸을 일으킨다. 그가 몸을 일으키면 구름이 오고, 구름이 오면 용이 그것을 탄다.”<sup>20)</sup>

그래서 천둥의 신(雷神)은 ‘용의 몸에 사람의 머리를 가진’ 존재로 형상화된다.

“雷澤中有雷神, 龍身而人頭, 鼓其腹.

뇌택 가운데에 뇌신이 있는데, 용의 몸에 사람의 머리를 하고 자신의 배를 두드린다.”<sup>21)</sup>

18) 『禮記』, 「月令」.

19) “川淵者, 龍魚之去也.”(『荀子』, 「9.致士篇」); “蛟龍水去”(『淮南子』, 「原道訓」).

20) 『論衡』, 「龍虛篇」.

물 속에 있던 용이 천둥소리를 들으면 몸을 일으켜 구름을 타고 비상한다는 믿음은 어디서 기인한 것일까? 이것은 허구적 망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자연현상들을 예리하게 관찰하였을 뿐 아니라, 그 변화를 민감하게 몸으로 느껴 우주의 질서에 자신들의 삶을 동화시키려했던 고대 중국인들의 자연의 과학의 정서적 반응물이다.

곡우 때는 나무가 한창 물이 오르는 시기이다. 그래서 예로부터 중국과 우리나라에서는 이때 고로쇠나무와 같은 나무의 수액을 받아 마시면 위장병이 낫는다 하여 나무의 수액을 채취하여 받아 마시곤 했으며, 이 풍속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겨우내 얼어 있던 물이 풀려 그 생명수를 위로 뺏어 올리는 이 시기는 또한 소하어류들이 산란을 위해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때이다.<sup>22)</sup>

龍門은 중국 산서성(山西省) 하진현(河津縣) 서북, 그리고 섬서성(陝西省) 한성현(韓城縣) 동북, 黃河의 兩岸에 걸쳐 있는 산 이름이다. 바다로부터 황하의 물길을 따라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삼문협(三門峽)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물길이 매우 거센 곳으로 유명하다. 이 삼문협을 지나면 바로 용문이다. 원래 황하의 물길은 용문산이 가로막아 그 물이 양자강과 회수의 물과 합쳐져 넘쳐흘러 천지가 물바다가 되곤 하였는데, 우(禹)가 황하의 물길을 끌어들이고 용문산의 험한 지세를 개척하여 물길을 내어 서로 통하게 했다고 고대 신화는 이야기한다.<sup>23)</sup>

연어나 송어, 열목어와 같은 소하어류(溯河魚類)가 산란을 위해 황하의 상류로 가기 위해서는 삼문협의 폭류를 통과해야만 한다. 떨어지는 물의 에너지는 엄청나기 때문에 물고기들은 가장 힘이 약한 부분을 공략해야만 한다. 그들은 정면 돌파를 시도하지 않고, 물속이나 가장자리의 바위 같은 것에 의지해 꼬리를 힘차게 휘저어 뛰어오른다. 그러나 아무리 꼬리를 힘차게 휘젓더라도 떨어지는 물의 에너지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면 실패하고 만다. 강의 물길을 역으로 거슬러 오르는 것은 단지 물고기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차고 오르는 에너지와 앞에서 받는 에

21) 『山海經』, 「海內東經」.

22) 해마다 곡우 때면 경기도 연천군 군남, 왕징, 미산면 임진강 상류에는 산란기를 맞아 하류에서 떼 지어 올라오는 누치가 강을 가득 메워 장관을 이룬다고 한다. 과거에는 이즈음 임진강 상류에는 수많은 낚시꾼들이 물러들어 누치를 잡아 즉석에서 매운탕을 끓여 먹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강물이 점차 탁해지면서 이제는 누치 잡이가 예전만 못하지만, 그래도 곡우 때면 어김없이 누치가 수백여 마리씩 떼를 지어 상류로 올라간다고 한다. 《한겨레신문》, 2003/4/19/토

23) 『淮南子』, 「人間訓」; 「泰族訓」. 『書經』, 「禹貢」편에서는 '우가 황하의 물길을 이끌어 적석산을 거쳐 용문산에 이르렀다 導河, 積石, 至于龍門'으로 기록되어 있다.

너지가 절묘한 조화를 이루어야지만 삼문협의 폭류를 뛰어넘을 수 있다.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의 에너지는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순간 아래로 흐르는 폭류의 에너지와 역류하려는 자신의 에너지가 일치했을 때, 물고기들은 물길보다 더 높이 뛰어 오를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서 내리치는 폭류의 힘과 꼬리로 힘차게 뛰어 오르는 물고기의 힘이 서로 상응하여 공명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 절묘한 조화의 한 순간을 위해 소하어류들은 수십 차례, 혹은 수백 차례가 넘는 시도를 계속한다. 삼문협이 물길을 뚫고 지나가 황하의 상류에서 산란에 성공하는 물고기의 수는 별로 많지 않아 대다수의 물고기들은 그곳에서 죽고 만다.

고대 중국인들은 물고기들이 삼문협을 넘어 위로 올라가면 용이 되어 하늘을 날게 되고 못 올라가면 그곳에서 죽는다고 생각했다. 용문이라는 지명은 바로 삼문협이 폭류를 타고 오른 물고기들이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문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용문산은 황하의 양안에 걸쳐 있는지라 멀리서 보면 실제로 그 형상이 문처럼 보이는데, 고대 중국인들은 땅 밑의 칩층들이 천둥소리에 놀라 구멍을 뚫고 땅 위로 나오듯이, 겨우내 얼어붙은 물속에서 물고기의 형상을 하고 있던 용이 천둥소리에 감응하여 몸을 일으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문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

이처럼 등용문이란 말의 원래 의미는 오늘날의 그것처럼 단지 입신출세의 길에 들어섰다는 결과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오히려 자연의 상반되는 두 실체들 간에 완벽한 조화가 이루어졌음을 함축하고 있다. 흘러내리는 강물의 힘과 그에 맞서 꼬리로 힘차게 뛰어오르는 물고기의 힘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었음을, 막아선 험산의 부동의 산마루와 요동치며 흐르는 강물의 거센 물줄기가 서로 소통하였음을 의미한다. 등용문이란, 말하자면 음과 양이 상응하여 조화로운 혼용된 상태와 그 결과, 즉 물고기들의 산란, 생명의 씨앗의 파종을 예견하고 있는 복합적 의미의 낱말이다.

음의 기운과 양의 기운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 춘분의 시기에 구름을 타고 위로 올라간 용은 모여든 구름을<sup>24)</sup> 물로 변화시켜 지상으로 내려 보냄으로써<sup>25)</sup> 봄에 생명의 씨앗을 가꿀 농부들의 일손을 바쁘게 한다. 하늘에 용성이 나타난 것을 보고, 고대 중국인들은 머잖아 봄비가 촉촉이 내릴 것이고, 그래서 파종의 때가 가

24) “伯益作井，龍登玄雲。백익이 우물을 만들었을 때, 용이 검은 구름을 타고 올라갔다.” 『淮南子』, 『本經訓』.

25) “以龍致雨. 용으로써 비를 불러온다.” 『呂氏春秋』, 『恃君覽』, 召類.

까워 오고 있음을 알았을 것이다. 그들은 우주의 규칙적인 리듬이 어긋나지 않도록 춘분 때에 곡우를 기원하는 축제를 벌였을 것이며, 이 춘분 축제가 바로 왕충이 말하는 春雩였을 것이다.

사료의 부족으로 인해 고대의 이 춘분제를 온전하게 재구성하기는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龍을 맞아들이는 과정과 비상하는 용의 모습을 모방한 춤이 있었다는 것만은 분명히 알 수 있다.

“春旱, 以甲乙日爲蒼龍一, 長八尺, 去中央. 爲小龍七, 各長四尺, 於東方. 皆東向, 其間相去八尺. 小童八人, 皆齋三日, 服青衣以舞之.

봄에 가뭄이 들었을 때, 갑을 날에 팔 척의 푸른 용 하나를 만들어, 중앙에 둔다. 4척짜리 작은 용 일곱 개를 만들어 동방에 둔다. 모두 동쪽을 향하게 하고, 각각 팔 척의 간격으로 둔다. 동자 여덟 명을 3일 동안 재계하게 한 뒤 푸른 옷을 입혀서 춤추게 한다.”<sup>26)</sup>

『春秋繁露』의 위의 기록은 4계절의 기우제의 양상이, 그 세부사항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음을 알려준다. 예컨대 여름 가뭄에는 붉은 용을 만들고 붉은 옷을 입고 춤을 추며, 季夏에는 황색 용과 황색 옷, 가을 가뭄에는 흰 용과 흰 옷, 그리고 겨울 가뭄에는 검은 용을 만들고 검은 옷을 입고 춤을 춘다는 식이다. 동중서의 기록은 기우제의 양상이 정확히 오행의 원리에 따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漢) 대의 기우제가 실제로 이런 식으로 행해졌는지는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적어도 봄의 기우제에서 여러 명의 어린아이(童子)들이 춤을 추었다는 기록은 앞에서 살펴본 증석(曾皙)의 언설에 대한 왕충의 해석과 거의 일치한다.

또 『左傳』의 저자는 용보(龍輔)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주석가들은 이를 기우제에 사용되었던, 옥으로 만든 용의 형상이라고 설명한다.<sup>27)</sup> 실제로 한자 중에는 용 문양이 새겨진 옥을 의미하는 글자도 있으며, 또 고대 유적지에서 발굴된 고고학적 유물들 중에서 용 형상의 옥장식물이 발견되기도 한다.

“龍, 禱旱玉也, 爲龍文.

룡은 가뭄 때에 (비 오기를) 기도하는 옥으로, 용의 문양을 만들었다.”<sup>28)</sup>

26) 僮仲舒, 『春秋繁露』, 「求雨」.

27) “公賜公衍羔裘, 使獻龍輔於齊侯. 공이 공자 공연에게 어린 양의 가죽으로 만든 옷을 주고, 그로 하여금 (기우제에 쓰는) 옥을 제나라 군주에게 드리게 했다.” 『左傳』, 昭公, 29年.

때로는 옥 대신 청동으로,<sup>29)</sup> 또는 흙으로 용의 형상을 만들기도 했던 것 같다.

“譬若芻狗土龍之始成，文而青黃，絹以綺繡，纏以朱絲。尸祝祓紘，大夫袞冕，以送迎之。

비유하자면 추구나 토룡과 같아, 처음 만들 때는 청색, 황색으로 장식하고 비단으로 아름답게 꾸미며, 붉은 실로 매기도 한다. 시축은 검은 예복을 입고 대부는 곤면을 쓰고 이를 보내거나 맞아 들인다.”<sup>30)</sup>

이 증언은 비주기적 기우의례에 관한 것이긴 하나, 고대의 춘분제인 雩祭가 비를 기원하는 곡우제였으므로 가뭄 시에 행해졌던 비주기적 기우의례의 일부 절차들이 주기적 의례인 봄 雩祭의 몇몇 의식들과 유사하였으리라 무리없이 추정할 수 있다. 민속은, 비록 그 원래의 의미가 탈각되거나 그 구성요소들이 원래의 문맥에서 이탈해 나가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그 형태는 완전히 소멸해 없어지지 않고 유사한 성격의 다른 의례 속에 자리잡거나, 아니면 과편화된 형태로 독자적인 삶을 누리며 장구한 세월동안 존속해가기 때문이다.

고대 문헌이 산발적으로 전해주는 단편적 정보들로 판단해보건대, 고대 중국인들은 기우의례에서 생명수를 내려줄 용의 모습을 옥으로, 청동으로 또는 흙으로 조각하여 맞아들였다.<sup>31)</sup> 이어서 어린 아이들이 북소리에 맞춰, 혹은 북을 치며, 물에서 나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용의 모습을 모방하는 춤을 추었음이 거의 확실하다. 곡우를 기원했던 춘분축제에서 유래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춤은 곳곳에서 서로 상응하여 움직이는 대자연의 몸짓에 동화되어 살고자 했던 고대 중국인들의 우주적 생명력의 표출이다.

“類同相召，氣同則合，聲比則應。故鼓宮而宮應，鼓角而角動。以龍致雨，以形逐影。사물의 종류가 같으면 서로를 부르고, 기가 같으면 합하며, 소리가 서로 친밀

28) 『說文』 夬I. Jean-Pierre Diény, Le Symbolism du dragon dans la Chine antique, De Boccard, Paris, 1987, p.43에서 재인용.

29) 1986년 쓰촨(四川)성 청두(成都) 시 근교의 삼성퇴(三星堆)에서 발굴된 유물 중에는 용의 머리가 주조되어 있는 원주가 발견되었다. 중국학자들은 이 용의 정체를 기(夔)로 간주하여, 이 원주의 이름을 龍夔柱形이라 붙였다.

30) 『淮南子』, 『齊俗訓』.

31) 『左傳』에서는 禘祭를 지내 옥을 강물에 던졌다는 구절이 있는데, 고대 문헌은 禘祭도 水旱祭로 증언한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옥으로 만든 용의 형상을 강물에 던지기도 했던 것 같다.

하면 반응한다.

그러므로 공음을 두드리면 공음이 반응하고, 각음을 두드리면 각음이 반응한다.

용으로써 비를 불러오고, 형체로써 그림자를 추구한다.”<sup>32)</sup>

어두운 비구름이 하늘을 덮을 때 새들은 천공 높이 날아오르지 않고 지표면 가까이에서 저공비행을 한다. 또 식물은 온화한 봄의 생명 기운을 받아 싹을 틔우고 냉랭한 가을의 한기에 잎을 떨군다. 이처럼 자연물들은 변화하는 우주의 기운에 감응하여 움직임을 달리하며 그에 화답한다. 우리는 應龍이라는 이름 자체가 바로 물속의 물고기, 지상의 식물, 천상의 별들의 움직임, 그리고 인간의 삶이 서로 응하여 빚어내는 대자연의 봄의 장관, 우주의 봄의 춤을 상기시키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우리는 신화 4의 내용에는 용의 모습을 조각하여 비를 불러들이려 했던 기우제의 단편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응용의 신화 4가 곡우제나 비주기적 기우제의 한 절차를 이야기한다면, 신화 5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신화 4에서 언급되는 과보라는 인물, 그리고 농경의 책임자 숙균이 ‘밭도랑의 물골을 터놓고 개천의 물길을 터서 통하게 했다 決通溝瀆’은 신화 5의 문구가 이를 해결할 실마리를 제공한다.

### 3. 해를 쫓는(追日) 사나이 夸父, 물길을 여는(決通溝瀆) 叔均

예나 지금이나 한 해의 양식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봄에, 때로 곡물 경작에 반드시 필요한 단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계속되어 농부들의 가슴을 애타게 만들기도 한다. “신이여, 북쪽으로 돌아가소서 神北行”이라는 신화 5의 구절은 봄의 곡우제 穀雨祭에서, 혹은 기우의례에서 한발을 추방하는 說文이 아니었을까? 신화 4에서 응용이 치우와 과보를 죽였다고 이야기하는데, 태양을 쫓으려 했던 과보 이야기의 한 신화소의 의미를 분석해보면 이러한 추정이 일말의 타당성을 확보한다.

6. “夸父與日逐走 入日, 渴欲得飲, 飲于河渭. 河渭不足, 北飲大澤, 未至, 道渴而死. 棄其杖, 化爲鄱林.

과보가 태양과 경주를 하였는데, 해 질 무렵이 되었다. 목이 말라 물을 마시고 싶어 황하와 위수의 물을 마셨다. 황하와 위수로는 부족하여, 북쪽으로 대택

32) 『淮南子』, 『齊俗訓』.

의 물을 마시러 갔다가 도착하기도 전에 목이 말라 죽어버렸다. 그 지팡이를 버렸는데 그것이 변하여 등림이 되었다.”<sup>33)</sup>

7. “大荒之中, 有山名曰成都載天. 有人珥兩黃蛇, 把兩黃蛇, 名曰夸父. 后土生信, 信生夸父. 夸父不量力, 欲追日景, 逮之于禺谷. 將飲河而不足也, 將走大澤, 未至, 死于此. 應龍已殺蚩尤, 又殺夸父, 乃去南方處之, 故南方多雨.

대황의 한 가운데에 성도재천이라는 산이 있다. 두 마리의 누런 뱀을 귀에 걸고 두 마리의 누런 뱀을 손에 쥔 사람이 있는데, 이름을 과보라고 한다. 과보가 (자신의) 힘을 헤아리지 않고 해를 쫓아가려고 하다가 우곡에 이르렀다. 황하를 마시려 했으나 양에 차지 않아 대택으로 가려 했지만, 도착하기 전에 이곳에서 죽었다. 용룡이 치우를 죽이고 난 후 또 과보를 죽이고 그리고 남방으로 가서 살았기 때문에 남방에는 비가 많다.”<sup>34)</sup>

위 신화에서는 과보가 황하와 위수의 물을 다 마시고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아 북쪽 대택(大澤)의 물을 마시러 가려 했으나 도중에서 죽었다고 한다. 대택은 ‘뭇 새들이 태어나고 깃을 가는 곳 群鳥所生及所解이다.<sup>35)</sup> 가볍게 공중을 나는 새는 양의 기운이 넘쳐나는 동물이다. 맑고 청명한<sup>36)</sup> 날, 새들은 더욱 높이 날아 비행 실력을 뽐내며 과보(夸夫, ‘뽐내는 사나이’)처럼 태양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간다. 한 곳으로 양의 기운이 지나치게 몰리면 다른 곳에서는 음의 기운이 몰려 대자연의 움직임에 이상이 생긴다. 이때 음화를 추구하는 우주의 마음은 한 곳에서 남아도는 양의 기운을 다른 곳으로 옮겨 보내 천지의 기운을 풀어 소통시킨다.<sup>37)</sup> 그의 조화로운 몸짓으로 ‘천지의 막힌 기운이 풀리고(解), 천둥과 비가 일어나 온갖 과일과 초목이 모두 껍질이 터지고 새싹이 돋아나며’<sup>38)</sup> 높이 나르던 새들은 깃을

33) 『山海經』, 「海外北經」.

34) 앞의 책, 「大荒北經」.

35) 앞의 책, 「海內西經」.

36) 가볍고(輕) 청명(淸明)한 양의 기운은 위로 올라가며, 무겁고(重) 탁한(濁) 음의 기운은 아래로 내려간다(『淮南子』, 「精神訓」).

37) 오늘날 과학자들 중에는 태풍을 “조물주의 섭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대기화학·태풍연구센터장인 권혁조 공주대 교수는 “지구 전체의 에너지 분포를 보면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는 저위도에선 에너지가 남으며, 태양 에너지를 적게 받는 고위도에선 에너지가 부족해진다”며 “태풍은 저위도의 남아도는 열을 고위도로 수송하는 절묘한 자연현상”이라고 설명한다(《한겨레신문》, 2003년 8월 6일 수요일).

38) “解險以動, 動而免乎險 해괘는 험함으로 움직이는 것이니, 움직여 험한 데서 벗어나는 것을 해라 한다”, “天地解而雷雨作, 雷雨作而百果草木, 皆甲拆, 解之時, 大矣哉 천지가 풀리고 천둥과 비가 일어나니, 온갖 과일과 초목이 모두 껍질이 터지고 새싹



떨어뜨린다.

기우제는 解라고도 불렀으므로, 못 새들이 깃을 가는 곳(所解) 대택은 곧 기우제가 행해지는 곳(所解)이다. 폭염이 오래 지속되어 초목과 논밭의 곡물들이 말라비틀어지면 해(解)에서의 한발(旱魃), 즉 불(火)의 추방은 간혹 극한 양상을 띠기도 했다. 무당에게 기운 조절의 실패 책임을 전가하는 무당학대(暴巫) 의식이 바로 그것이다. 暴巫 의식은 고대 문헌들에서 산발적으로 거론되나, 신화는 이를 직접적으로 기술하지 않고 상징적으로 다소 드라마틱하게 이야기한다.

“女丑之尸，生而十日炙 殺之。在丈夫北 以右手鄣其面。十日居上，女丑居山之上。여축씨를 산채로 열개의 태양이 구워 죽이고 있다. 장부의 북쪽에 있으며 오른손으로 그 얼굴을 가리고 있다. 열 개의 태양이 공중에 떠 있고 여축은 산 위에 있다.”<sup>39)</sup>

중국 전통에서 쫓는 하늘에 동시에 출현한 10개의 태양을 활로 쏘아 가뭄을 추방한 치한(治旱)의 영웅이며, 까마귀는 태양을 실어 나르는 태양새이다. 그래서 굴원(屈原)은 “예는 어디에서 해를 쏘았고, 까마귀는 어디에서 깃을 떨어뜨렸나 羿焉彈日，烏焉解羽라고 묻는다.<sup>40)</sup> 따라서 태양을 쫓는 사나이 과보의 죽음은 곡우제나 기우제(解)에서 불(火)의 기운을 추방하는 몸짓, 즉 하늘 높이 날아오르던 태양새 까마귀가 깃을 떨어뜨리는 의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또한 비주기적 기우제에서의 暴巫 의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과보는 비록 대택에까지 이르지 못한 듯했으나 그가 죽자 — 깃을 떨어뜨리자(解) — 그의 지팡이가 변해 鄧林이라는 숲이 되었다고 한다. 막혔던 기운이 풀려 — 解로 인해 — 천지가 소통하면 곧 천둥소리가 들리고 뒤이어 비가 내릴 것이다. 그리하여 말라비틀어진 지팡이 같은 가지에 생명의 물줄기가 돌기 시작하면 수목은 수액을 위로 뻗어 올리며 — ‘登林’ — 바야흐로 생명의 초록을 펼칠 것이다. 어찌면 비가 예상 외로 너무 많이 내릴 수도 있으며, 이는 또 달리 농사에 지장을 초래할지도 모른다. 이에 대비해 농경을 담당할 숙군은 논밭의 물골을 터서 물줄기를 잘 통하게 해두어야 한다.

“밤과 낮이 균등하게 나누어지는 중춘의 달이 되면, 천둥소리가 들리고 번개가

이 돌아난다.” 『周易』, 40. 雷水解, 解卦象辭.

39) 『山海經』, 「海外西經」.

40) 『楚辭』, 「天文」.

요란하게 치기 시작”하면서 겨울 가뭄을 해소하는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봄에 수시로 내리는 비(時雨)로 인해 때로 강물이 범람하여 역류할 수도 있다. 이를 막기 위해 天子는 봄에 사공(司空)에게 제방과 다리를 수리하고, 개천들을 잘 통하도록 하고, 도로를 개통하여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명했다”<sup>41)</sup>고 한다. 개천을 통하게 하고 다리와 제방을 수리하는 일은 治水 작업이다.

禹는 대홍수를 다스린(治水) 후에, 널리 땅을 펼쳐(敷土) 九州를 정하였다고 중국의 가장 오래된 문헌들은 이야기한다.<sup>42)</sup> 그는 왕이 되기 전에 舜 임금의 사공(司空)이었다고 하는데, 사공은 물과 땅을 다스리는 관직이었으며,<sup>43)</sup> 이는 신화 5에서 농경의 책임자 숙균이 하는 일과 동일하다. 따라서 신화 5에는 곡우제나 기우제의 단편뿐 아니라 그 후 이어지는 농사일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숙균(‘콩 叔=菽’, ‘고를 均’)이라는 이름 자체도 이를 암시한다.

#### IV. 나가는 말

지금까지의 작업을 간추려 정리해 보자. 龍星은 고대 중국인들에게 춘분의 때를 알려주는 별자리였으며, 그래서 바야흐로 파종의 시기가 다가옴을 일러주는 농사력의 한 지표였다. 생명의 양식을 준비하기 시작하려 할 즈음에 그들은 곡물 경작에 반드시 필요한 단비가 내리기를 기원하는 의례를 거행했다. 봄의 이 穀雨祭에서, 또는 가뭄을 해소하기 위한 祈雨의례에서, 농민들은 먼저 응룡(應龍)의 상(像)으로 “神北行”을 외치며 가뭄의 신 한발(旱魃)을 북쪽으로 추방한 후, 비를 불러오는 응룡의 몸짓을 모방하는 의식을 행했을 것이다. 이 의식에서 춤은 핵심적 구성요소를 이루었으며, 북소리에 맞춰 추었을 이 춤은 천둥소리를 듣고 물에서 나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용의 모습을 모방한 것이다. 천지의 만남이 가져다줄 비의 범람에 대비해 농경의 책임자들은 농부들로 하여금 밭도랑의 물골을 터놓고, 개천들이 통하게 하고, 제방과 둑을 수리하는 일 또한 소홀히 하지 않도록 했을 것이다. 물의 통어자 응룡의 신화가 전하는 이야기는 대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어울리는 고대중국 민중들의 바로 이러한 역동적인 생활상들이다.

41) 『禮記』, 「月令」, 季春之月.

42) “禹敷土”(『書經』, 禹貢); “洪水茫茫, 禹敷下土方”(『詩經』, 「商頌」, 長發); “禹卒布土, 以定九州”(『山海經』, 「18. 海內經」).

43) 『書經』, 「舜典」.

중국과 극동아시아에서만큼 용에 관한 다양한 믿음과 신화를 가진 곳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일찍이 슐레겔은 만일 유럽인들이 중국인들이 묘사하는 용의 모습을 보면 깜짝 놀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글의 서두에서도 말했지만, 그들은 용에 대해 부정적 관념들만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비록 홍수를 일으키는 교룡, 즉 우주 질서교란자로서 용에 관한 믿음과 신화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 이 신화들은 다른 곳에서 연구한 적이 있으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다 —, 집단심성 속에서 용은 우주질서를 조절하는 신성한 동물로 보다 확고히, 그리고 널리 자리잡는다. 지금까지의 탐구를 통해 우리는 왜 중국인들에게 용은 신성한 동물로 인식되었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이해는 다른 작업, 즉 빛의 통어자 축룡에 대한 연구가 추가되어야만 온전한 이해가 될 수 있다.

지구 자전축 위의 하늘인 천구 북극에 가장 가까이 있는 별자리를 우리는 북극성(北極星, polaris)이라 부른다. 현재는 작은곰자리 α가 북극성으로, 천구 북극에서 불과 1° 떨어져 있다. 지구의 세차운동으로 인해 천구의 북극은 서서히 이동하므로 북극성 별자리도 달라진다. 지금부터 5000년 전에는 용자리 α가 북극성이었다고 한다. 고대중국의 龍星이 오늘날의 용자리(龍座)와 동일한 별자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용성에 관한 기록 중에는 북극성의 특성을 암시해주는 것들도 있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축룡의 성격, 그리고 왕권의 상징물로서의 용의 이미지는 못 별들이 그 주위를 도는 북극성이었던 용성에서 기인한 것일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이에 대한 보다 정밀한 천착은 다음 기회에 이루어질 것이다.